

우수발명試作品 補助金增額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特許廳은 지난 4월 23일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을 改正, 우수발명 試作品製作에 따른 보조금 교부한도액을 지금까지 1人當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上向 調整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제작비용 증가에 따라 교부 한도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外國出願費用보조시 出願件別로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지금까지 외국출원비용이 6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의 50%를 지급하던 것을 80만원미만일 경우 그 비용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海外特許情報 第1輯 發刊

季刊으로 海外特許制度 및 情報소개

本會 發刊 「海外特許情報 第1輯」이 發刊되었다. 季刊으로 發刊될 本 情報誌는 지난해까지 月刊으로 發刊되던 「海外特許情報시리즈」를 改善한 것으로 이번에 發刊된 第1輯에는 ▲外國人 이 본 韓國特許制度 ▲美國 半導體칩 保護法 解説 ▲改正 PCT規則 解説 ▲東南亞 各國 商標制度 比較 紹介 ▲國際機構 現況등과 함께 附錄으로 各國 特許廳 住所錄을 실고 있다.

4.6倍版 183面으로 發刊된 本 情報誌는 本會 會員社에 無料 配布되었다.

工所權法改正專門委 열려

改正에 따른 本會意見 수렴위해

本會 工業所有權法 改正 審議 專門委員會가 지난 5월 3日 오후 2시 本會 理事室에서 本會 玉文碩理事등 工業所有權專門委員 다수가 參席한 가운데 3時間동안 열렸다.

이번 工業所有權法 改正 專門委員會는 特許廳의 工業所有權法 改正에 따라 本會의 意見을 提示하기 위해 열렸다.

그런데 최근 特許廳은 工業所有權의 國際化 추세에 副應하여 現行 法令中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고 未備事項을 補完하므로서 特許制度의 現代化를 期하기 위하여 先進國에서 採擇하고 있는 制度中 우리 實情에 맞는 制度를 導入하여 技術開發을 促進하기로 했다.

本會 職員 經濟教育 實施

物價安定과 外債問題 中心

本會는 지난 5월 7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經濟企劃院 商工擔當(예산) 金성진事務官을 招請, 本會 職員 및 大韓辨理士會 職員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經濟全般에 대한 經濟教育을 實施했다.

이날 講士로 招請된 金성진事務官은 우리의 日常生活과 가장 密接한 物價安定問題와 外債問題를 中心으로 約 90分에 걸쳐 講議했다.

特許廳 팩시밀리 設置

政府의 팩시밀리網 구성계획에 의거

特許廳은 지난 4월 18일부터 政府의 팩시밀리網 구성운영계획에 따라 팩시밀리를 설치했다.

팩시밀리는 9층 총무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는 568~9113 약호는 O. P. A, 568~9113.

소프트웨어 登錄制度채택

科技處, 國產化 및 流通促進위해

科學技術處는 지난 4월 9일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기 위해 그

主要内容과 취지를立法 예고했다.

그 主要内容은 소프트웨어의 國産化 및 流通 促進을 기하고자 國內開發 소프트웨어의 登錄 制度를 新設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産業의 健全한 育成을 위한 支援 및 現況把握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流通促進을 기하고자 소프트웨어업자의 신고제도를 新設하도록 하는 內容등이 包含되어 있다.

88年 APAA總會 서울에서

88올림픽 끝난 11月쯤 開催키로

아시아辨理士協會(APAA, 韓國部會 會長 崔在澈)는 85년도 總會에서 88년도 定期總會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APAA韓國部會에 따르면 3년마다 열리는 다음번 總會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개최시기는 88년 올림픽이 끝난 11월초쯤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工所權 論文集 原稿 모집

大韓辨理士會서 7月 31日까지

大韓辨理士會는 會員과 工業所有權과 관련한 人士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論文集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번에 發刊될 論文集은 지난 79년도에 發刊한 第1輯에 이은 第2輯으로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公業소유권에 關한 學問을 체계있게 연구하고 制度의 改善과 發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大韓辨理士에서는 論文集原稿를 모집하고 있다.

企業의 特許擔當者도 응모가 가능하며 原稿는 工業所有權 4法을 中心으로 2백자 원고지 50매내외로 作成, 오는 7月 31日까지 大韓辨理士會(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번지 惠泉빌딩 5층)로 提出하면 된다.

浦鐵 粗鋼생산

世界 11위 랭크

浦項製鐵이 지난해 세계 주요제철소 가운데 粗鋼생산에 있어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철강협회(IISI)가 발표한 84년도의 세계 주요제철소 粗鋼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新日本製鐵이 2천9백40만톤으로 83년에 이어 1위였고 US스틸이 1천4백30만톤으로 2위였으며 浦項製鐵은 9백20만톤으로 83년에 이어 11위를 기록했다.

아스파탐 國內 特許 획득

大熊제약 新製法으로 첫 合成특허

人工甘味料인 「아스파탐」의 개발을 둘러싼 국내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大熊제약이 特許를 획득했다.

大熊제약(대표 尹泳煥)은 지난 82년 5월부터 단맛이 실랑의 2백배나 되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의 독자개발에 착수하여 전혀 새로운 製法인 SPHC工法을 개발, 지난 4월 17일 特許(제19185호)를 획득했다.

肝炎 진단용시약 開發

東亞제약 生物공학이용 즉시판결

B형 간염의 간염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수 있는 간염진단용 시약이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개발됐다.

東亞製藥(대표 姜信浩)은 간염바이러스의 표면항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클론항체를 선별, 여기에 효소를 결합시킴으로써 간염에 걸렸을때 이효소의 색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염여부를 판명할수있는 진단용 시약을 개발했다. ㉞